

# 敬思想 研究

朴昇植\*

目 次	
I. 序論	Ⅲ. 大巡思想의 敬과 實行
Ⅱ. 敬 思想과 修養	1. 敬의 意義
1. 中國의 敬思想	2. 敬天의 意義
2. 韓國의 敬思想	3. 敬의 實行
3. 敬과 修養.	Ⅳ. 結論

## I. 序 論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신조(信條)인 삼요체(三要諦) 중 敬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대순사상의 삼요체는 誠·敬·信인데, 誠에 관해서는 이미 연구한 바 있다. 誠·敬·信은 동양사상의 핵심이 되어 온 儒教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教理이며, 인간 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덕목이다. 誠은 유교에서는 윤리의 기본이며, 학문과 생활을 하는데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여 기본적인 道로 존중하고 있다. 誠을 온전히 실행하는 것은 天道로서 인간이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라 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의 인간은 天道에 이르기 위해서 誠을 실행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人道라 한다. 誠은 진실 자체이며 天理의 본연으로, 궁극적인 최상의 道라는 것이다. 인간이 천리를 따라 眞實無妄해지기 위해서 誠을 실행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인간이 행해야할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誠은 도

\* 행정학 박사

덕적 극치로서 인간 윤리의 최고 가치로 인정하여 왔다.

유학에서는 道가 인간에 내재해 있다고 하여 인간이 진리의 주체라 한다. 道를 행하는 주체가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도를 통해 本性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지, 도가 인간의 본성을 확대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도가 내재해 있는데, 그 도를 인간이 주체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 근본인 천리가 인간의 본성에 존재하는데, 인간이 그 본성을 유지하고 발현해야 한다고 한다.

인간이 천리를 깨닫고 본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수양을 해야 한다. 천도인 誠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양을 해야 하는데, 수양에는 敬이 중요하다라고 한다. 敬도 誠과 같이 인간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윤리규범으로 중시하고 있다. 誠은 자연과 인간의 근본인 天理이며, 敬은 인간이 誠에 이르고자 하는데 근본이 되는 실행 윤리라 할 수 있다. 敬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 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敬의 목적은 誠에 이르고자 하는 실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敬은 사욕의 발동을 억제하려는 수양 방법인데, 사욕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은 誠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誠과 敬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관계라 할 수 있어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誠은 내적인 것이고, 敬은 외적인 것으로 상호 표리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행하여야 한다. 誠과 敬은 體와 用の 관계로 誠과 敬이 일치할 때에 君子之道를 행하는 것이며, 聖人の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된다.

敬思想은 心性의 수양을 통해 인격을 완성하여 聖人の 경지에 이르려는 것으로, 서양철학 등 다른 철학의 영역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중국과 한국 儒家哲學의 독특한 경향이다. 경 사상을 정립한 학자는 중국에서는 二程 형제와 주희 등이고, 우리나라에서는 退溪이다. 그리하여 朱子學과 退溪學은 敬의 哲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敬을 중심으로 하여, 敬 修養論은 宋代 新儒學者와 조선시대 性理學者들의 학문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sup>1)</sup>

그리고 대순사상에서도 敬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준행해야 할 교리이자 덕목으로 중시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敬이 수도를 하는데, 근본이

1) 康東均, “朱熹의 敬 思想 研究”, 博士學位論文(東亞大學校 大學院, 1994), p. 2.

라 하여 三要諦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敬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하고자 하는 본 논문은 동양사상에서의 敬의 의의와, 대순사상에서의 敬에 관한 내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중국과 한국의 敬思想을 살펴보고, 대순사상에서의 敬의 의의와 실행에 관해 論究해 보고자 한다.

## II. 敬思想과 修養

### 1. 中國의 敬思想

모든 사상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이 敬도 多義的이다. 중국에서 敬 개념은 先秦時代부터 있어 왔다. 선진시대에 敬은 畏敬, 慎獨, 禮의 본질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畏敬은 周易, 書經, 中庸 등에서 볼 수 있고, 慎獨은 大學과 中庸, 禮의 본질은 禮記, 曲禮, 論語 등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敬은 ‘說文’에 “敬肅也 ㄸ支苟”라 하여 모든 것을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禮記’ 曲禮上에서는 “恭敬撝節”이라 하여 恭과 敬으로 설명하고 있다. 恭은 외적으로는 조심성이 많은 것 같지만 마음은 적은 것이고, 敬은 마음으로는 조심성이 많지만 외양으로는 적게 나타나는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외양과 마음이 모두 조심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公敬이라 하였다. 한편 ‘呂覽孝行’에서는 “敢不敬乎”의 註에서 “敬畏慎也”라 하여, 敬은 두려워하고 조심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敬은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조심하며,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敬이 유가에서 학문 연구와 수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宋代 新儒學이다. 유학은 본질적으로 수기치인지학(修己治人之學)으로 인격을 수양하는 修己와 바른 정치를 행하는 治人に 중점을 두고 있다. 宋代 新儒學者들은 治人 보다는 修己를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는 개인들이 인격 수양을 통해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도덕성을 확립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상사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른 정치를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인들이 높은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新儒學에서 修己를 위한 修養은 敬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고 하며, 경을 실행하기 위한 것을 敬工夫라 한다. 敬에 의해 수양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敬을 연구한 내용을 敬思想이라 한다. 新儒學에서는 敬은 마음에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수양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전통적으로 유학에서는 마음이 만사의 근본이라고 믿어, 인간이 본심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新儒學에서는 本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격수양을 하여야 하는데, 인격수양은 敬工夫가 근본이라 하였다.

수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敬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周易의 '敬以直內 義以方外'를 敬으로 이해하여 왔다. "군자는 敬으로 마음을 곧게 하고 義로서 언행과 용모를 바르게 한다. 敬과 義가 서게 되면 德은 외롭지 않다. 곧고 바르게 커서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은 그가 행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君子 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直方大 不習無不利 則不疑 其所行也)"<sup>2)</sup>는 것을 인용하여, 程明道는 "敬으로 內를 정직하게 하고 義로서 外를 방정하게 하여 敬義를 세우면, 德은 외롭지 않게 된다"<sup>3)</sup>고 하였다. 마음을 곧게 한다는 敬以直內는 사사로운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아 밝고 맑은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한다. 밝고 맑은 마음을 가지면 상하를 모두 통하게 되고 내외가 하나와 같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義로 언행과 용모를 바르게 한다는 義以方外는 옳은 것은 철저하게 행하고, 그른 것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다. 敬이 서면 마음이 곧게 되고, 義가 이루어지면 언행과 용모가 바르게 되어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하게 된다고 한다. 敬以直內 義以方外는 각각 內-外, 體-用, 未發-已發의 대립적 관계로 설명하기도 한다. 마음속에 도덕성이 확립되면 외적으로 행동이 올바르게 된다고 한다. 敬以直內는 내면적 수양이고, 義以方外는 외면적 실행을 하는 수양이다. 敬以直內의 내면적 수양은 天理가 자신에게 본래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을 體認하여, 이를 함양하는 수양을 통해 도덕성을 확립해 나가려는 것이다. 내면적인 수양을 통해서 도

2) 周易, 文言.

3) 二程全集, 卷二.

덕성을 확립하여야 形氣(육체적, 물질적 욕구)에 의한 사욕과 私意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敬以直內는 體이고, 義以方外는 用으로, 양자가 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敬과 義가 함께 이루어져야 德이 성하게 되고, 천덕(天德)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敬以直內가 없이 義以方外가 실행될 수 없으며, 義以方外는 敬以直內가 이루어져야 완전해지므로, 양자를 동시에 실행하려는 수양을 해야만 한다.

둘째, 敬은 憂患意識이라고 보기도 한다. 사람들이 덕을 닦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지 않아서 인륜 도덕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우려에서 우환의식이 생겼다. 덕을 닦지 아니하는 것, 학문에 정진하지 않는 것, 옳은 일을 실행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는 데에서(子曰 德之不修 學之不講 聞義不能徒 不善不能改 是吾憂也), 우환의식이 내면화되었다. 어떠한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조심스럽게 이루어 나간다(必也臨事而懼 好謀而成者也)<sup>4)</sup>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환의식은 생의 고통과 죄악보다는 강한 도덕심에서 유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환의식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과 자기 완성에 대한 책임감으로,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경계하고 삼가며 남들이 듣지 않더라도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는 中庸의 신독(慎獨), 주역의 지시식세(知時識勢)의 처세방법이라 할 수 있다.<sup>5)</sup> 현재의 처지나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을 갖고 도덕적 수양을 하라는 것이다. 우환의식은 中庸의 계신공구(戒慎恐懼)와도 유사하다. 戒慎恐懼의 대상은 삼달덕 오달도(三達德 五達道)<sup>6)</sup>인데,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 행위법칙이다. 戒慎恐懼는 三達德 五達道를 충실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려하는 것으로 일종의 우환의식이라 할 수 있다.

셋째, 敬은 慎獨의 의미도 있다. 신독은 우환의식과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다. 신독은 中庸, 周易, 大學 등에 나타나 있는데, 중용과 대학의 신독의 의미는 한가로이 혼자 있을 때 뜻을 참되게 하는 것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용에서는 계신(戒慎)의 근원을 天命에 두는데,

4) 論語, 述而.

5) 康東均, 前掲論文, p. 15.

6) “天下之達道五 所以行之者三 曰：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五子 天下之達道也 智仁勇三者 天下之達德也 所以行之者一也”，中庸 二十章.

대학에서는 스스로 만족(自謙)하는 마음에 근원을 두고 있다. 중용에서는 신독을 천리와 인육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朱熹는 인육이 발동하려 할 때에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양심뿐인데, 이를 獨이라 한다. 그리하여 신독은 인육이 생겨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잘 살펴 양심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한다. 慎獨은 인간이 천리를 따라야 하는데, 인육으로 양심인 천리를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근신하라는 것이다.

넷째, 敬에 관해서 程頤는 ‘主一無適’과 ‘整齊嚴肅’이라 하였다. 그는 주일(主一)은 敬이라 하고 무적(無適)은 一이라 한다. 主一은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存天理)이고 無適은 사욕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一은 마음을 하나에 중점을 두고 유지한다는 것이고, 主는 하나의 마음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主一은 자신의 의지를 마음의 이치와 합치시키는 것으로 한결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無適은 사사로운 욕망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主一無適은 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사욕의 발동을 막고 집중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主一無適에 대해서 朱熹는 主一은 敬이고, 無適은 마음을 유지하여 어떠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제엄숙(整齊嚴肅)은 외적 용모를 단정히 하고 태도를 엄숙하게 하여 내적인 마음까지 專一하게 통일하는 것을 뜻한다. 整齊嚴肅하게 되면 마음(內)이 一이 되고, 一이 되면 그릇되고 편벽됨이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경 공부는 整齊嚴肅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한다. “敬은 반드시 整齊嚴肅해야 하는데, 의관을 바르게 하고 시선을 존엄하게 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程子曰 敬必以整齊嚴肅 正衣冠 尊瞻視爲先).”<sup>7)</sup>고 하였다. 외모를 가지런히 하고 엄숙하게 하면 곧 마음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고 한다. 엄숙하게 위엄을 지키는 것이 敬은 아니지만, 敬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整齊嚴肅해야만 마음이 專一하게 되며, 용모를 단정히 하고 생각을 가지런히 하여야 敬이 생긴다고 한다.

다섯째, 敬은 整齊嚴肅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한

7) 心經附註, 卷一.

다고 한다. 謝良佐는 “敬은 整齊嚴肅이라 하는데, 진실로 옳기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혼미하여 이치를 밝히는데 밝지 못하다면 억지로 이 마음을 지닌다 하더라도 어찌 敬이 될 수 있겠는가”라 하여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인간이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추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마음의 수양공부를 하여야 한다. 마음이 혼탁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치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謝良佐는 心常惺惺法을 주장하였다. 心常惺惺法이란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생생한 의식 상태를 갖는 것을 뜻한다. 생생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이치를 바르게 터득할 수 있고, 물욕과 사욕을 경계할 수 있다고 한다.

여섯째, 尹焞은 ‘其心收斂 不容一物로 敬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主一이란 神祀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과 같이 어떠한 사사로움도 허용하지 않는 상태라 한다. 主一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수렴하는 기심수렴(其心收斂)이 필요한데, 이는 사욕으로 잃어버린 본심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기질인 形氣에 의해 생긴 사욕으로 흩어진 본심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마음의 수렴이다. 인간이 본심을 회복하게 되면 어떠한 사욕과 사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욕망을 버리는 금욕이 아니라, 私意와 邪念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불용일물(不容一物)은 사소한 사욕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敬은 바른 禮라 하기도 한다. 敬과 禮의 관계는 絶四(絶四)로 설명한다. ① 사사로운 생각을 없애고(毋意), ②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毋必), ③ 한가지 일에 매달려 집착하는 마음을 끊어 버리고(毋固), ④ 잘못된 자기의 의견을 고수하려는 생각을 버려야(毋我) 敬과 禮가 확립된다고 한다. 이 네 가지가 원인이 되어 인간이 바른 마음과 행동을 할 수 없으므로, 絶四를 해야만 敬을 바탕으로 한 禮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禮는 형식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바른 예를 행하려면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하여 예는 경건한 마음을 갖고, 행동을 예의에 맞게 함으로서 마음과 행동이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주희는 이상의 敬의 의미를 모두 수용하면서, 畏와 點檢을 추가하

여 敬을 설명하고 있다. 畏란 천명을 두려워한다는 외천명(畏天命)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천명은 하늘에서 명령한 것으로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마치 祠堂 앞에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畏는 머리 위로는 神과 부모와 스승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이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깊은 연못과 얇은 얼음이 있는 듯이 조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畏는 인격적 주재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조심스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은 하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이,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가지고, 두려운 듯 조심하면서 신중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 한다. 畏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것으로 종교적 敬虔性과도 통한다.

그리고 點檢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반성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경은 인간이 일을 할 때나 없을 때에나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일이 없어도 존양(存養)하고 主敬하는데 소홀하지 않으며, 사물을 대할 때에는 專一하는 것이 점검이다. 경은 맑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집중하고, 일마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항상 반성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끝으로, 경은 誠과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정명도는 “敬은 天의 道요, 敬은 인사의 근본이니 敬은 곧 誠이다”라고 하여 誠은 내적인 것이고 敬은 외적인 것으로 表裏關係에 있다고 하여, 도덕적 실천의 궁극적 목표인 誠과 仁을 경 공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다. 성은 ‘眞實無妄’이라 하고, 경은 ‘戒愼恐懼’라 하는데, 이러한 의미는 誠은 體이고 敬은 用이라 할 수 있다. 주희도 誠은 “純一無爲”라 하고, 敬은 “主一無適”이라 하여, 誠과 敬은 분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誠은 하나의 실제로 이루어짐(實)이고, 敬은 하나의 두려워 함(畏)이다.”<sup>8)</sup>라 하여 誠은 본질적인 것이고, 敬은 실천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성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덕목인 天理이며, 경은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敬의 극진함을 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敬의 목적은 誠이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경은 사악함을 물리치는 수양의 한 방법인데, 사악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誠을

8) 心經發揮, 卷一.



보존하는 것이라 한다. 경 공부를 잘 하려면 사악함을 물리치면서 동시에 인간의 본성에 있는 誠을 보존해야 한다.

敬思想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주희는 인간은 항상 방종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敬 공부를 강조하였다. 인간이 방심하여 본성을 잃어버리면 탐욕, 사욕, 사의 등이 생겨서 천리를 따르지 않고, 부도덕해진다 는 것이다. 인간이 이렇게 되면 천명에 대한 외경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일상 일을 반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러한 방종과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敬에 의한 수양이 필요하다고 한다.

## 2. 韓國의 敬 思想

우리나라에서 敬을 체계화한 것은 퇴계이다. 퇴계는 敬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다른 데로 끌리지 않는 상태(主一無適), 자세를 가지런히 하고 태도를 엄숙히 하는 것(整濟嚴肅), 항상 정신을 맑게 하여 깨어 있는 상태(恒惺惺覺), 자신의 마음을 잘 갈무리하여 외부사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心收斂 不容一物) 등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퇴계의 경 사상은 중국의 경 사상을 수용하면서 체계화하였다.

퇴계는 敬을 학문하는 기본적 자세로 보고 있다. 퇴계는 戊辰六條疎에서 “敬을 근본으로 삼고 理를 궁구하고 논의함으로써 지식을 쌓으며, 자신을 반성하면서 실제로 실천한다(敬以爲本 而窮理以致知 反躬以實踐)”고 하였다. 敬은 자신을 반성하면서 몸소 실천하는 지적 활동과 반궁실천(反躬實踐)하는 행위가 상호작용 하는 삶의 근본적 방식이며, 학문을 하는 기본 태도라 한다.<sup>9)</sup>

퇴계의 학문하는 태도는 知의 극처(極處)에 이르는 것만은 아니라 한다. 그의 학문은 反躬實踐의 行과 窮理致知의 知가 함께 하는 것이다. 퇴계는 삶과 학문을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삶이 最高善을 실천하는 것으로 敬의 삶이라 한다. 敬의 삶은 깊이 숙고하여 해석하는 사고를 중시하는 것이다. 사고가 없는 학문은 맹목적 복종을 하는 위험이 따른다고 한다. 學

9) 김종문, 장윤수, 한국전통철학사상(서울 : 소강, 1997), p. 283.

問과 思考를 증시하는 퇴계의 학문세계는 聖人の 길을 배우는 삶의 장으로서, 動과 靜을 貫通하고 內와 外를 통합하여야 한다고 한다.

퇴계는 敬은 “중화위육지공(中和爲育之功)의 극치를 이루는 삶이며, 천지와 더불어 혼합하여 거리감과 소원한 것이 없으며 동시에 美的인 것과 윤리가 합치하는 대화의 장이며, 이것이 곧 성인의 삶이라 한다. 퇴계가 말하는 성인의 삶은 자유롭게 도덕성이 실현되는 삶인 장을 말한다. 聖人の 삶은 유학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로, 윤리와 미학을 통합하는 최고로 즐거운 지락(至樂)의 세계이다.

퇴계는 “敬하면 욕심이 적어지고 理가 밝아진다. 욕심이 적어지고 또 적어져서 無에 이르면 고요할 때에는 마음의 무욕의 虛에 처하여 理가 밝아지고, 움직일 때에는 理와 仁義가 발호하고 실천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敬의 삶을 사는 성인이 되는 길은 누구나 학문하면 가능한 것이다(敬則欲寡而理明 寡之又寡以至於無 則靜虛動直 而聖可學矣)”<sup>10)</sup> 라고 하였다. 퇴계는 학문은 경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퇴계는 克己復禮爲仁(克己復禮爲仁)을 주희의 해석을 따라 욕심을 버리고 天理를 회복하는 삶으로 보고 있다. 그는 天理의 理는 무극이며 무성무취(無聲無臭)이며 무욕의 虛라 하고, 理를 밝히는 무욕의 虛에 이르러 순수무잡(純粹無雜)의 경지에 이르면 너와 나의 만남이 열리는 삶이 理의 의식을 초월한 너와 나의 만남이며, 그것은 너와 나 사이의 인간적인 삶이 회복되는 장이며 합리적인 윤리와 禮가 회복되는 敬의 場이라 한다.

퇴계의 학문은 修己를 강조하여 인간이 참된 본성을 함양하고, 그것을 온전히 드러냄으로서 인격적 자기완성을 도모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성학(聖學)이라 한다. 爲己之學은 학문을 자기에게서 구하는 것이며, 거경궁리(居敬窮理)와 지행병진(知行並進)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의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퇴계는 敬은 일심의 주재이며, 만사의 근본으로 보고 있으며 학문을 하는 데에 기본으로 보고 있다.<sup>11)</sup>

한편 퇴계는 理氣二元論의 입장에서 윤리적 수양의 과제는 氣를 규제하는

10) 聖學十圖.

11)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97), 168-169

것이라 하였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마음을 어떻게 주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퇴계는 마음의 주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의해서 천리와 人慾, 중절과 부중절(不中節)이 결정된다고 한다. 인간이 인욕을 억제하고 천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리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존양성찰(存養省察)을 하는 것으로, 고요할 때에는 천리의 본연을 함양하고, 움직일 때에는 인욕을 억제해야 한다고 한다.

퇴계는 “性이 발해서 情이 되는 것은 일심의 氣이고, 만화(萬化)의 주요(樞要)로서, 선악이 여기로부터 나뉘는 것이다. 학자는 진실로 전일(專一)하게 敬을 간직하여, 天理와 인욕에 어둡지 않게 해야 한다.”<sup>12)</sup>고 말하고 있다. 퇴계는 性에서 情이 되는 것은 마음의 氣에 의하는 것이라 하여, 氣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학문을 하는 데에도 敬을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는 학문을 하는 데에는 일이 있고 없음과 뜻이 있고 없음을 막론하고 敬으로 주를 삼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主敬을 퇴계는 지경(持敬)이라 한다. 퇴계는 인욕을 억제하고 천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경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한다. 인간의 마음은 크고 넓으면서도 좁고 위태롭기도 한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지경을 하게 되면 마음이 바르게 되어 물욕과 유혹됨이 없이 항상 천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퇴계는 학문을 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자기의 성장에 따라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시에 진리를 깨닫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한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정력을 극도로 소모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한다. 이를 경계하여 퇴계는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하고 持經해야 한다고 한다. 학문을 빨리 하면 성취도가 낮으며 빨리 멈추게 되므로, 인지(仁智)에 입각하여 마음을 평안하게 한 후에, 숙독하고 깊이 생각(靜思)하며 꾸준히 복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문을 계속하면 기질이 변하고 仁이 성숙하여 커다란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퇴계는 학문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아래에서 위로, 가까운 데에서 멀리, 生에서 熟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한다.

12) 退溪集, 卷7, p. 24.

학문은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경을 통한 자아 성숙을 의미한다. 인간은 스스로 높은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중종과 명종 때의 유학자로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 독자적 학풍을 열은 조식(曹植)은 주경(主敬)이 학문의 기본이라 하였다. 그는 남명집(南冥集)에서 학문은 초학자나 성인이나 경을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학문을 하는데 敬이 부족하면 거짓 학문이 될 수 있으므로, 주경을 충실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경으로 본심을 유지하면 사악함은 없어지고 모든 이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

敬은 학문의 시작이요 끝이다. 처음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성현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을 주로 함으로써(主敬) 도에 나아가는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 학문을 하면서 경을 주로 하는 공부가 부족하면 그 학문은 거짓이 되고 만다. 맹자가 말하기를 “학문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놓아버린 마음을 되찾는 것일 뿐이다.”라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경을 주로 하는 공부이다. 이 한마디가 지극하고 극진하다. 학문하는 사람들이 본심을 잘 거두어들이어 오래도록 잃지 않는다면 온갖 사악함이 저절로 사라지고 모든 이치가 저절로 통할 것이다.<sup>13)</sup>

그리고 曹植은 학문은 경을 행하는 자체라 한다. 학문을 시작하는 것은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자애롭게 대하는 것이라 한다. 즉 학문은 인간이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충실히 행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기본 윤리를 실행하지 않으면서, 심오한 이론과 천리를 연구하려는 것은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학문하는 사람은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예의를 준행하여야 높은 수준의 학문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윤리를 지키지 않는 데에서는,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한다. 인간의 도리와 할 일을 알아야 하늘의 이치를 탐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경하는 마음과 예절을 지키는데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13) 敬者 聖學之成始成終者 自初學以旨聖賢 皆以主敬爲進道之方 學以次主敬工夫 則其爲學僞矣 孟子曰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 此是主敬工夫 古者群聖賢之書 雖多 而於此一言 至矣盡矣 學者苟能收斂此心 久而不矣 則群邪自息 而萬里自通矣.

초학자의 공부란 아버이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며 어른에게 공손하고 아이에게 자애롭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일에는 힘쓰지 않고 갑자기 심오한 性理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이는 사람의 일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탐구하는 게 아니니, 필경 마음에 참되이 얻는 바가 없을 것이다. 이 점은 깊이 경계해야 한다.<sup>14)</sup>

서경덕(徐敬德)도 공부를 하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은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이치를 관찰하는 것이라 한다.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학문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공경스런 마음을 가지고 이치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라 한다. 공경하는 것은 하나에 專一하는 것이라 한다. 학문을 할 때에도 하나의 사물에 집중하여, 다른 일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인간이 하나의 일에 전일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일을 완성할 수 있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된다고 한다. 공경스런 마음을 갖는 공부를 철저히 하는 靜을 근본으로 삼아야 動을 제어할 수 있으며, 전일을 행함으로서 완전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공부하면 생각도 없고 허물도 없는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공경스런 마음을 가지고 이치를 관찰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공경이란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 두어 딴 데에 신경쓰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사물을 접하면 그 접한 바에 그치고 하나의 일에 응하면 그 응하는 바에 그쳐 다른 사물과 일이 그 사이에 끼여들지 못하게 한다면 마음이 전일하여 사물이 지나가 버리고 일이 끝난 후에 곧 거두어들일 수 있으므로, 그 맑고 깨끗하기가 마치 밝은 거울이 비어 있는 듯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공경스럽게 가지는 공부가 부족하면 바야흐로 자신의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 둘 때에도 그쳐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 그쳐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또한 마음의 누(累)가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경스런 마음을 갖는 공부를 오래함으로써 고요함(靜)을 근본으로 삼아 움직임(動)을 제어하고, 밖에서의 그침에 집착하지 않음과 동시에 안에서의 그침에 집착하지 않은 후에라야 생각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 경지에 거의 이를 수 있다.<sup>15)</sup>

14) 爲學 初不出事親敬兄悌長慈幼之間 如或不勉於此 而遽欲窮探性理之奧 是不於人事上求天理 終無實得於心 宜深戒之.

15) 然則如何用功 而可止於無思無過之地也 曰持經觀理 其方也 敬者 主一無適之謂也 接一物則止於所接 應一事則止於所應 無間以他也則心能一 及事過物去而使收斂 〇然當如明鑑之空也 然而顧吾持敬未熟 則方其主一之時 不爲泥止者鮮矣 泥止則亦爲累彌 必持敬之久 而能主靜 而御動 外不泥止 而內無滯止 然後無思無爲者 可畿也.

### 3. 敬과 修養

新儒學에서 수양의 원리로 삼고 있는 敬은 유학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학의 이념은 大學의 삼강령(三綱領)에 잘 나타나 있다. 三綱領은 ‘밝은 덕을 밝히고(明明德)’,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親民)’, ‘지극한 선에 이르는 것(止於至善)’이다. 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三綱領의 실현을 위해서 修己治人을 강조하고 있다. 유학은 개인이 스스로 인격을 수양하는 修己와,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治人에 중점을 두고 있다. 明明德은 修己에 해당하고, 親民은 治人에 해당하며, 止於至善은 明明德과 親民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修己와 治人을 至善토록 할 때에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이상세계인 王天下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王天下는 平天下와 같은 의미이다. 과거에는 왕이 절대권력을 갖고 통치하는 시대이었으므로 王天下는 곧 平天下를 뜻한다.<sup>16)</sup> 平天下란 지상세계의 안녕과 질서가 완성된 이상사회를 의미한다. 平天下는 유학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세계로서, 修己와 治人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宋代 新儒學者들은 유학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에는 治人 보다는 修己를 강조하였다. 그것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는 개인들이 인격 수양을 통해 도덕성을 함양하는 修己가 보다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修己를 통해서 개인들이 인격을 도야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함양하면, 平天下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治人보다 修己를 강조하였다. 新儒學에서 修己를 위한 修養은 敬을 기본으로 하여 敬思想이라 한다.

中庸에 “하늘이 명령한 것을 性이라 하고, 性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道라 하고, 도를 닦아 나가는 것을 수양(教)이라 한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sup>17)</sup>고 하였는데, 이것은 유가에서 天理를 바탕으로 한 人性論과 修養論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주 본체로서의 천리가 개체에 부여한 것이 性이고, 이러한 본성에 따라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이 道이며, 도를 실행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양이라는 것이다. 天命인 性을

16) 李完裁, “儒學의 情神”, 道源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方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83).

17) 中庸, 首章.

따라 생활하는 것이 道인데, 道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수양이라는 것이다.

유학에서 수양의 목표는 君子, 나아가 聖人이 되는 데 있다. 군자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격자이며, 聖인은 완전한 인격을 갖춘 이상적 인간을 말한다. 공자는 군자에 이르는 길을 자각과 수양이라고 강조한다. 군자는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양에 진력하는 사람이고, 수양을 철저하게 행하여 완전한 도덕성을 갖게 되면 성인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敬思想을 체계화한 주희도 수양은 聖인이 되는 길로서, 공자의 仁, 맹자의 仁義, 중용의 天道와 같은 사상은 모두 敬과 통한다고 하였다.

新儒學의 수양이론은 인성과 관련하여 전개하였다. 신유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本然之性과 氣質之性, 人心과 道心, 天理와 人慾 등으로 나누고 있다. 본연지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으로 본성이라고도 하며, 기질지성은 인간이 환경과 대응하면서 생기는 욕망과 같은 것을 말한다. 본연지성은 인간이 부여받은 天理이며, 자연의 본체인 천도와 동일한 理로서 至善을 말한다. 이러한 본성은 인간에 내재한 것으로 선한 것이지만, 후천적으로 不善해질 수 있는데, 이를 기질지성이라 한다.

인심과 도심은 마음이 발동하여 작용할 때 생기게 되는 양면성을 말한다. 인간의 마음이 천리를 따르는 것은 道心이라 하고, 욕망을 따르면 人心이라 한다. 인심은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생기는 욕망을 말하고, 도심은 이치를 깨닫는 본성을 말한다. 인심이나 도심은 인간의 마음을 뜻하는데, 욕망에 의한 마음은 인심이고 천리를 따르는 마음은 도심이다. 인간이 인심을 따르게 되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행동하게 되고, 도심을 따르게 되면 至善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이와 같이 二分하고 있지만, 주희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다. 인간이 본성을 따르느냐, 아니면 기질에 의한 인욕을 따르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 한다. 본연지성과 도심, 천리는 인간의 본성으로서, 항상 인간의 마음에 내재해 있는데, 기질에 의해 不善하기 쉬운 인심과 인욕이 있다는 것이다.

유가에서 수양은 본성과 도심을 유지하고 닦아 나가는 것을 뜻한다. 氣

質之性, 人心과 人慾등을 버리고 本然之性과 道心, 天理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인간은 천리를 받아 본성은 선하지만, 인간의 행위는 항상 선한 것이 아니라, 不善한 경우가 많다. 純粹至善한 천리가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은 선하지만, 후천적인 形氣(私慾, 私意, 衝動등)에 의해 不善하게 된다. 形氣는 육체적 기질로서 사람에 따라 精, 粹하기도 하고 漓, 濁하기도 하다고 한다. 천리에 따라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지만, 후천적인 형기에 의해 善人도 되고 不善人도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의 善·不善은 후천적인 형기에 영향을 받으므로 신유학자들은 純粹至善한 본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형기의 작용을 다스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신유학의 주요 관심은 본성을 유지하고 형기의 작용을 극복하려는 것으로서, 이것이 수양론의 핵심이다. 수양은 敬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敬 공부는 형기에 작용하는 마음을 닦아야 하기 때문에 심성 수양을 강조한다.

신유학의 수양은 敬思想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敬思想은 宋代 性理學을 창시한 周濂溪의 주정설(主靜說)을 비판하면서 체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主靜說은 禪佛敎와 수양법과 周濂溪의 無慾에 의한 수양법이 대표적이다. 周濂溪는 우주론과 심성론을 결합하여 설명한 太極圖說을 제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主靜說을 수양법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純粹至善하지만 外物에 접하여 善惡이 생기기 때문에, 主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수양공부로는 主靜과 無慾을 주장하였다.<sup>18)</sup> 周濂溪는 마음이 외부 사물의 자극을 받아 뾰를 나타내게 되는 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무욕을 인격수양과 학문을 하는데 근본으로 삼았다. 그가 말하는 무욕은 사욕과 사심이 없는 명경(明鏡)같이 고요한 마음을 말한다. 그리고 靜은 본래의 자신을 보존하는 공부로서 主靜을 하게 되면 인간의 본성이 진실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무욕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하게 되고 텅비어 움직일 때에 곧게(直)된다. 그리하여 聖人은 靜을 중심으로 본성인 誠을 온전하게 실행하지만, 보통의 사람은 五性(仁義禮智信)이 外物

18) 周濂溪는 仁義가 만물을 생성한다고 하면서, 主靜은 無慾이라고 해석하였다. 靜은 周濂溪가 주창한 太極圖說에서 “太極이 動하여 陽을 生하고 動이 지극하면 靜하니 靜하여 陰을 生한다. 靜이 지극하면 다시 動한다. 한번 動하고 한번 靜하여 서로 뿌리가 되며 陰으로 分立하고 陽으로 分立함에 兩儀가 分立한다.”고 하여 太極의 動靜을 설명하고 있다.



과 접하면서 욕심이 생기므로 主靜의 수양공부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인간은 精粹한 氣로 구성되어 있어서 理知的 탐구와 심성의 수양을 통해 본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主靜의 수양공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程伊川은 周濂溪의 무욕과 主靜 등의 수양법은 실천을 하는데 소극적이며, 불교의 禪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周濂溪의 主靜을 主敬으로 전환하여 의미를 체계화하였다. 周濂溪가 주장한 無慾이나 禁慾主義는 불교나 도가의 사상으로 유가의 사상이 아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鄭伊川은 “靜은 불교의 주장으로, 靜字를 사용하지 않고 敬字를 사용한다”고 하여 主敬을 주장하였다. 그는 主靜은 불교적인 것으로 유가의 寡慾과 다르므로, 主敬이라 하였다. 鄭伊川은 “敬하면 저절로 虛靜하게 된다. 虛靜을 敬이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敬靜이 근본이라고 한다. 敬은 靜도 포함한다고 보고 動靜과 内外를 관통한다는 主敬說을 주장하였다.<sup>19)</sup> 敬을 통해서 無爲, 무욕 등의 소극적인 수양태도에서, 일이 있을 때에나 없을 때에나 수양에 전념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을 취하였다. 鄭伊川은 致知는 窮理이며 用敬은 居敬이라 하면서, 未發·主靜에 편중된 수양법을 未發과 已發은 敬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sup>20)</sup>

主敬에 의한 수양은 인간의 의지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인간의 의지가 이치를 따르려고 하는가, 아니면 개인적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가를 파악하여 대응해야 하는데, 이것은 의지와 관련이 있다. 인간의 의지가 지향하는 이치는 본성의 이치일 수도 있고, 외부 사물의 이치일 수도 있다. 主敬을 할 때 의지가 향하고 있는 것은 마음속의 이치이다. 경으로 마음속을 바로 잡는 데에 집중하여 내부의 이치(본성)가 의지가 되도록 한다면, 외적 행동은 쉽게 올바르게 될 수 있다고 한다. 천리와 인욕, 도심과 인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마음이 이치에 합당하면 천리이며 도심이지만, 情欲을 따르면 인욕이며 인심이라는 것이다. 程伊川은 수양하는데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분노와 욕심이라 한다. 자신을 수양하는데 제거해야 할 것은 분노와 욕심

19) 康東均, 前掲論文, p. 33.

20) 유명중, 성리학파 양명학(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4), p. 28.

뿐이며, 분노를 징벌하고 경계해서 욕심을 향한 의지를 막아야 한다고 한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분노하는 것은 욕구에 의한 것이므로, 분노를 줄이고 이치를 살피며 순리를 따라야 한다고 한다.

주희는 二程의 경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敬에 의한 수양을 체계화하였다. 주희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윤리문제를 해석하는데 理氣를 기본 개념으로 사용한 철학자이다.<sup>21)</sup> 주희는 정이천이 맹자의 性善說을 받아들여 성즉시리(性卽是理), 즉 性이 곧 理라는 명제를 보다 체계화하였다. 주희는 天命之性은 理 자체로 善하지만, 氣質之性은 理와 氣가 혼합된 성품이라 한다. 理는 至善한 것이므로 천명지성은 지선하다고 한다. 그러나 “천하에 理 없는 氣가 없으며 氣 없는 理도 없다(天下未有無理之氣 亦未有無氣之理)”고 하여, 보통의 인간들은 理氣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를 氣質之性이라 한다.<sup>22)</sup> 인간이 현명하고(賢) 어리석은(愚) 것은 사람이 가진 氣의 청탁(淸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淸한 기를 가진 사람은 물 속의 진주처럼 賢人이나 聖人이 되지만, 濁한 기를 가진 사람은 흐린 물 속의 진주처럼 어리석다는 것이다. 주자는 인간이 明德을 밝히는 것은 흐린 물 속의 진주를 닦아내는 것과 같다고 한다.

주희는 氣를 맑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敬 공부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마음은 항상 방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이 방심하여 본성을 잃어버리면 태만, 탐욕, 사욕, 私意 등이 침투하여 천리를 깨달을 수 없고 마음이 혼탁해져 타락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성에 의해 천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수양법을 敬 공부라 하였다.

주희는 周易의 敬 개념인 敬以直內와 義以方外, 未發時와 已發時의 수양을 體用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敬으로 안(마음)을 바르게 하는 敬以直內를 體라 하고, 義로 밖(행동과 용모)을 방정하게 한다는 義以方外는 用으로 보고 있다. 敬以直內의 수양은 敬을 통해서 천리가 자신에게 본래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것을 體認하고, 이를 함양하여 완전한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敬以直內로 수양을 한다고 해서 내적 수양만 한다

21) 김종문, 장윤수, 한국전통철학사상(서울 : 소강, 1997), p.95

22) 李康洙, “人間의 目標問題에 관한 一考察”, 韓國孔子學會, 孔子思想과 現代(서울 : 思社研, 1986), p. 217.

는 협의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공부에 중점을 두지만 외적 행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내적 수양인 敬以直內와 외적 수양인 義以方外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있는 것(中)은 반드시 모두 밖으로 드러난다. 마음이 바르고 곧으면 행동도 절도에 맞지만,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음 공부인 敬以直內와 외적 수양인 義以方外를 동시에 행하지 않으면 완전한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할 수 없다. 敬以直內가 되어야 義以方外가 이루어지질 수 있으며, 義以方外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敬以直內도 실현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함양하는 것을 본체로 삼고, 마음이 발동하였을 때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을 작용으로 보고 있다. 未發時의 경 공부는 '敬의 體'이고 已發時의 경 공부는 '敬의 用'이라 한다. 주희에 따르면 미발시에 體認·存養하는 경 공부가 본체이고, 이발시에 찰식(察識)하고 省察하는 것은 경의 작용이라 한다. 따라서 마음이 발동하지 않은 미발상태와 마음이 발동한 이발상태에서의 수양 공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희는 敬 공부를 하는데 居敬涵養을 기본으로 하고, 格物致知와 力行을 강조하였다. 그는 “涵養, 致知, 力行의 세 가지 공부에 있어서 함양을 제일 먼저하고, 致知를 하고, 그리고 力行을 해야 한다. 만약 함양을 하지 않으면 주재자(主宰者)가 없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수양은 居敬涵養으로 마음을 수양하고, 格物致知로 사물의 이치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실행을 하여야 완전한 수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희의 경 공부인 居敬涵養과 格物致知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居敬涵養에서 居敬은 스스로 경건하게 처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희는 “주체성을 확고히 확립하는 것(自處以敬 則中有主而自治嚴)”이라 한다. 함양은 德性이 온전하게 길러진 것으로, 도덕성을 자각하고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居敬涵養은 인간의 심성을 바탕으로 전개한 수양법이다. 주희는 心, 性, 情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심성을 이론화하였다. 그는 性卽理와 心統性情이라는 명제로 심성을 다루었다. 주희는 性은 모든 사물이 갖고 있어 모든 사물은 동일한 원칙(理一)하에서 존재하고 변화한다고 하였다. 한편 性

은 모든 사물이 각기 갖추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개별 사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性은 각 사물에 독특하게 존재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물의 性은 하나의 이치로 통일되기도 한다고 한다. 性은 곧 理이고 理는 性이라 할 수 있어, 理를 心性과 연관지어 보면 性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한다.

주희는 心을 未發心(발동하기 전)과 已發心(발동한 후)으로 나누고, 未發心을 性이라 하고 已發心을 情이라 한다. 性(本性)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치이고, 情은 본성이 외부와 작용하여 생긴 감정이다. 따라서 마음은 본성과 감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한다. 주희는 성은 天理이므로 마음에 의해 主宰를 받는 것이 아니라, 性은 心과 情의 기초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주희는 수양은 情을 억제하고 본성의 이치에 따르도록 하는 善意志를 기르는 것이라 하였다.

주희의 수양공부는 未發心에는 본성(본래의 덕성)을 함양하고, 已發心에는 감정이 中和狀態에 이르도록 察識하고 省察하는 것이다. 주희의 이러한 수양법을 中和說이라 하는데, 中和說은 舊說과 新說이 있다. 中和說에서 中은 본성의 상태를 말하고, 和는 본성을 잃지 않고 서로 조화되어 통일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주희는 李侗의 未發氣象體認說과 張栻의 已發察識端兒說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中和說을 정립하였다. 李侗은 주희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본체를 체득하고, 한편으로는 말없이 앉아 마음을 맑게 하여(默坐澄心), 본성의 이치를 體認하라고 가르쳤다. 李侗은 未發氣象體認을 하라고 하였으나, 주희는 이에 대해 회의를 갖고 中和舊說을 제창하였다. 中和舊說은 초기의 수양론으로 마음이 발동한 상태에서 察識하는 것을 중시하였는데(先察識 後存養), 中和新說에서는 마음이 발동하기 전인 未發狀態의 본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先存養 後察識)고 보았다. 마음이 발동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성인 中의 상태를 보존하면서, 그 능력을 길러 내야 하는 居敬涵養을 하여야 한다. 미발시에는 본성이 온전한 상태에 있으므로, 본성을 보존하고 길러야 한다. 미발의 본성을 보존하고 기르는 수양법이 居敬涵養(居敬涵養)으로 存養(存養)이라고도 한다. 미발시에는 본성에 따라 경건하게 행동하여야 하고, 이를 보존하고 더욱 경건하게 실행하기 위

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발시에는 어떠한 것도 생기지 않아서 마음이 맑은 거울 같고 잔잔한 물 같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면 마음이 발동하여도 절도와 예의에 맞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存養은 일상 생활에서도 덕성을 확립해 나가는 본령공부(本領工夫)이다.

已發時에 행하는 공부는 省察과 窮理(察識)이다. 성찰은 마음의 실마리(씩)를 살피는 것이고, 궁리란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여 알아낸다는 것이다. 성찰은 경건함을 갖고 주의를 집중하여 살피는 것으로, 마음을 성찰하면 세상의 어떠한 일이라도 절도와 법도에 맞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성찰은 已發 狀態에서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여 미발의 본성에 부여된 이치까지도 완전히 깨닫는 것이다. 已發時에는 대하는 일마다 성찰하고 추론하여 이치를 정확하게 깨달으려는 노력을 기울여, 혼자서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가 본성에 내재해 있다고 믿는 천인합일(天人合一)에서 제시된 수양법으로서,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은 곧 내 마음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궁리는 모든 사물은 각각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를 철저히 탐구하는 것으로 格物과 유사하다.

已發時에 행하는 공부인 窮理는 格物과 같은 의미로, 格物은 유학의 수양과 학문방법이다. 大學의 格物補傳에서 格物은 즉물이궁기리(卽物而窮其理)라 하였다. 卽物窮理는 사물의 법칙을 탐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사회를 완전히 이해하려는 방법이다. 그리고 格物致知는 大學章句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窮天理, 明人論, 講聖言, 通世故”이다. 즉 의리를 통하여 도덕질서를 확립하고(明人論), 孔孟이후의 모든 가르침을 연구하며(講聖言), 인간사회의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면(通世故), 窮天理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格物致知는 인륜의 확립, 성현들의 가르침의 탐구, 사리에 맞게 일을 처리하여, 천리에 이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二程도 수양은 正心誠意에서 시작된다고 하면서, 眞知를 알기 위해서는 格物工夫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성실한 마음은 致知를 하는 데에서 생기고, 치지는 격물을 하는데 있다고 한다. 모든 사물에는 이치가 내재해 있으며, 그 이치를 하나 하나 궁리하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가장 먼저 할 것은 正心誠意이다. 誠意는 致知에 있고 致知는 格物에 있다 格은 至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온다는 格과 같다. 무릇 一物에는 一理가 있으니 그 理를 窮理한다. 窮理는 여러 갈래이다. 혹은 책을 읽고 의리를 밝히며, 혹은 고금의 인물을 논하고 그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며, 혹은 일에 응하고 사물에 접촉하여 그 타당성을 처리한다. …오늘 하나를 格하고 내일 또 하나를 格한다. 오래도록 쌓고 그러한 뒤에 저절로 관통할 곳이 있게 된다.<sup>23)</sup>

그리고 본성은 이치(性卽理)라 하고, 천리와 인성의 관계를 정립하고 수양 방법을 제시하였다. “함양은 반드시 경으로 하여야 하며 학문이 나아가는 것은 치지에 있다(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sup>24)</sup>고 하여 수양과 학문은 格物 致知가 중요하다고 한다. 인격을 완성하는 수양은 敬으로 하고, 사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어야 하며(格物致知), 이 지식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한다.

주희는 格物의 格을 至, 또는 盡으로 이해하여 격물은 하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極至를 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격물은 객관적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 법칙 혹은 도덕적 시비를 파악하는 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인식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은 것은 실천하고, 그른 것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천하의 모든 사물은 당연한 법칙이 있는데, 당연법칙이 理라는 것이다. 당연법칙을 파악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窮天理인데, 이러한 궁리의 방법이 격물이라는 것이다.<sup>25)</sup> “格物은 일이나 사물에서 理를 궁구하는 것이며, 치지는 일과 사물에서 理를 인식하여 모르는 것이 없다(格物者 窮事事物物之理 致知者 知事事物物之理 無所不知)”<sup>26)</sup>고 한다.

따라서 格物窮理란 개개의 사물과 개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존재원리와 當爲法則 등을 탐구하여 완전히 이해하려는 지적활동이다. 주희는 궁리를 初學者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격물이라 하고, 즉물이격(卽物而格)이라 하였다. 격물의 인식대상은 존재원리와 당위법칙인데, 이는 두 형태의 理이다. 이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이치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격물

23) 二程遺書, 卷十八.

24) 遺書, 卷十八.

25) 劉明鍾, 宋明哲學(서울 : 螢雪出版社, 1987), p. 171.

26) 大學 二.

의 목적이다. 개별적인 이치들을 하나씩 꾸준히 깨달으면, 나중에는 수 많은 이치들을 관통하고 있는 보편적 이치를 깨닫게 되는데, 이를 **활연관통(豁然貫通)**이라 한다.

致知의 知는 인식작용의 결과로 얻어진 지식을 말하기도 하고, 인식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능력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 인간은 탁월한 인식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인식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致知라 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능력은 실제로는 각기 다른 기질의 제약으로 인하여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 인간의 마음에 본래 갖고 있는 본성에는 모든 이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본성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그 이치로 인하여 다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치가 밝혀져 體認된다. 그리하여 格物致知는 인간이 至誠을 다하여 天理를 이해하는 것이라 하기도 한다. 物은 사건을 말하고, 致知는 지식을 완성하는 것으로 天理를 인식하는 것이다.<sup>27)</sup>

주희는 格物致知의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sup>28)</sup> 첫째는 가까운 것에서 시작하여 먼 곳까지 이르며, 간략하고 거친 것에서 정미(精微)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에게 긴요한 것부터 이해하고 축적한 후에 그 폭을 점점 넓혀 나가는 것이다. 셋째는 이미 안 것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지식을 넓혀 나가는 것이다. 넷째는 어떤 사물을 窮究할 때 하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난 후에 다른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博學, 審問, 慎思, 明辯하라는 것이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물어보고 신중히 생각하고 분명히 가려내어 실행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다.

주희가 추구하는 格物の 궁극적 목적은 사물에 대한 지식의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도덕적 수양을 하는데 있다. 사물의 이치가 곧 도리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한다. 즉 所當然之則과 所以然之故가 하나의 理로 통일된다고 한다. 이 두 개의 理를 궁구하는 목적은 객관적 사물의 이치가 아니라, 주체적인 心과 性의 도덕적 천리를 깨닫는 것으로 활연관통(豁然貫通)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

27) 具本明, 中國思想의 源流體系(서울 : 대왕사, 1982), p. 198.

28) 康東均, 前揭論文, pp. 156-157.

함되어 있다.

첫째, 개별적인 理를 탐구하면 하나의 理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程伊川도 “格物窮理란 천하의 모든 사물을 모두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궁구하다 보면 나머지는 유추할 수 있다(格物窮理 非是要盡窮天下之物 但於一事上窮盡 其他可以類推)”<sup>29)</sup>고 하였다. 개별적인 사물을 궁구하여 이치를 깨달으면 다른 사물의 이치도 저절로 깨닫게 되어 理一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현상세계에서 개별적인 사물의 이치를 하나 하나 궁리하면, 개체들간의 관계가 파악되어 만물의 이치에 내재한 보편적 이치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개별 사물에 내재한 이치들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모든 사물들의 이치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豁然貫通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치는 분수(分殊)의 理로서 특수한 理이고, 모든 사물에 통하는 이치는 理一로서 보편적인 理이다. 인간이 경험 가능한 개별 사물을 대상으로 꾸준히 치밀하게 이치를 궁구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보편적 이치를 환하게 깨우쳐 세상을 환하게 알게 되는데, 이것이 豁然貫通이다.

둘째, 만물의 이치는 모두 내 마음속에도 있으므로,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주희는 一心이 萬리를 구비하였고, 마음에는 萬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리는 일심에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마음에 구비된 萬리를 활용하여 사물의 이치를 致知해야 한다고 한다. 豁然貫通이 가능한 것은 내 마음에 이미 모든 사물의 이치가 내재되어 모든 사물의 도리를 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치는 별개의 사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으므로 궁구하면 豁然貫通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豁然貫通은 분석적이고 경험적인 논리적 추론을 통해 도달할 수 있고, 豁然貫通의 경지에 이르면 종합적이고 초경험적이고 비약적인 지적 직관의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고 한다.

格物致知와 居敬涵養은 경 공부의 핵심으로 상호보완적이다. 내적인 居敬涵養을 통해 확고한 도덕적 주체를 정립하고 외적인 格物致知를 통해 도덕적 세계관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居敬涵養은 개인의 욕망을 잘 다스려 본성의 이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善意志를 기르고, 格物致知로 세계와 사물을

29) 語類, 卷十五.



궁구하여 이치를 깨닫는 활동이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居敬涵養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格物致知를 하지 않을 수 없고, 格物致知로 모든 사물의 이치를 豁然貫通하기 위해서도 居敬涵養의 수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희는 敬을 실행하기 위한 수양공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敬齋箴(敬齋箴)에서 설명하고 있다. 敬齋箴은 주희가 스스로 수양을 위해 실천한 항목으로, 학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퇴계는 聖學十圖에서 敬齋箴은 명료하고 체계적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음미하고 실천하면 聖인이 되고 학문을 완성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吳澄이 敬齋箴을 해설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30)</sup>

첫째, 고요할 때에 법도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靜無違). 할 일이 없어서 고요히 지낼 때에도 처신이 사리와 物理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고, 마음가짐이 경건해야 한다. 주희는 “衣冠을 바르게 하며, 시선을 존엄하게 하여야 한다. 마음을 매우 차분하게 하여 하느님을 대하듯이 하라(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고 하였다. 敬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느님을 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 있더라도 의관을 바르게 하여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둘째, 움직일 때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動無違). 일을 처리하고 사물을 대할 때에는 반드시 사리와 物理에 따라야 한다. 행동을 하는 데에는 언제나 조심하고 공손하게 하며, 무리하거나 불손해서는 아니 된다.

셋째, 외모는 항상 단정해야 한다(表之正). 일상 생활을 하는데, 용모를 단정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문을 나서서는 손님을 뵈는 것 같이 하며, 일을 할 때에는 제례를 지내는 듯이 하여야 한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안이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出門如賓 承事如祭 戰戰兢兢 罔敢惑易)”고 하였다.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조심하면 마음도 엄숙해 진다고 한다.

넷째, 속마음도 단정해야 한다(裏之正). 입을 다물기를 병같이 하고 뜻을 방비하기를 城처럼 하여야 한다. 성실하고 신중하여 혹시라도 경솔하게 해

30) 康東均, 前揭論文, pp. 206-208.

서는 아니 된다(守口如瓶 防意如城 洞洞屬屬 罔敢惑輕). 말할 때에는 깊이 생각한 후에 하여야 하며,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바른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여야 한다(心之正而達於事). 바른 마음을 갖은 후에 일을 처리하여 사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서쪽으로 가야 할 일을 동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쪽으로 가야 할을 남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에만 신경을 써야 하며, 다른 일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不東以西 不南以北 當事而存 癡他其適). 일을 할 때에는 항상 正道를 따라야 하며,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일에는 전일해야 하며 마음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事之主一而本於心). 敬은 반드시 하나에 집중하여야 한다. 처음에 하나의 일만 있었는데, 새로운 일이 생기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고, 두 가지 일이 생기면 세 가지 일을 하게 되어 하나의 일에 집중해야 하는 敬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서대로 한 일에 專一하여 처리한 후에 다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일곱째, 앞의 여섯 가지를 종합하여 행한다(總前六章). 앞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모두 충실하게 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으니, 언제나 경건하게 행동하여야 한다(心不能無適之病). 잠시라도 경건함을 잃으면 사욕이 발동하여 집중할 수 없으므로, 항상 마음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러치게 되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事不能主一之病). 일을 하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만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主一해야 한다.

열째, 敬齋箴의 전체를 통합하여 실행하여야 한다(總結一篇). 사람은 오직 경건함을 명심하고, 하나의 항목들을 하나 하나 철저히 준행하여야 한다.

주희는 敬齋箴에서 敬을 행하는(持經) 공부를 적시하고 스스로 실행하였다. 마음이 발동하기 전의 경 공부와 마음이 발동한 후의 경 공부에 대해서 실행하여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敬齋箴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결코 소홀해서는 아니 되고, 專一하고 主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희의 경 공부는 인간이 타고난 본성(天性)을 스스로 깨닫고 涵養하여 마음과 행동이 본성의 이치에 따르도록 항상 반성하고 점검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개인이 스스로 항상 경건하고 진지한 마음을 갖고 사물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敬齋箴이다.

### Ⅲ. 大巡思想의 敬과 實行

대순사상에서 敬은 중요한 교리의 하나이다. 수도생활을 하는데 근본이 되는 삼요체인 誠·敬·信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신조인 사강령(四綱領)에서도 敬天으로 강조하고 있다.<sup>31)</sup>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 敬은 敬天을 기반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행해야 할 중요한 교리로 삼고 있다. 대순사상의 敬은 敬天에서 유래하였으므로, 敬과 敬天의 의의와 실행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敬의 意義

대순사상에서 敬은 마음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마음과 敬과의 관계는 新儒學에서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유학에서는 마음은 만사의 근본으로 이해하고, 天理를 간직한 본성을 유지하는 것이 수양이라고 한다. 주희도 마음이 보존되지 않으면 몸이 主宰 받을 곳이 없으며, 마음을 보존하고 기르려면 敬 공부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신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은 天理를 받아 善하지만, 인간이 갖는 사욕과 私意와 충동 등에 의해서 마음이 흐려진다고 한다. 신유학에서는 인간이 타고난 순수한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본성을 흐리게 하는 욕망과 충동 등을 억제하는 것이 수양이다.

31) 敬天에 관해서는 大巡思想論叢에서 기 연구한 바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참조하기 바람. 拙稿, “大巡思想의 信條 : 敬天·修道”, 大巡思想論叢, 제8집(大巡思想學術院, 1999)..

대순사상에서도 신유학과 같이 敬을 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은 體와 用으로 보고 있다.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여 만기(萬機)를 통솔 이용한다.”<sup>32)</sup> 고 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라 한다. 그리고 “모든 일이 내심의 소정(所定)에 따라 몸으로 표현되는 법이다.”<sup>33)</sup>라 하여, 마음이 중심이 되고 몸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낸다고 한다. 이는 新儒學에서 敬 공부를 하는데 敬以直內를 내적 수양이라 하고, 義以方外를 외적 수양으로 삼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내적인 敬以直內로 천성을 보존하고, 義에 의해 절도와 법도에 맞는 행동을 하는 수양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수양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도 마음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일신을 주관하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하여야 몸도 평안해진다고 한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몸이 태평(心安身泰)하다고 하고, 병도 마음에 의해 생긴다고 한다. 병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일어난다(病自己而發)고 하고, 安心과 安身이 병을 고치는 약이라 한다.<sup>34)</sup>

한편 “사람의 마음은 신의 중요한 용사기관이요 신이 출입하고 왕래하는 길이라(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道路也).”<sup>35)</sup>하여, 마음은 신과 교류하는 통로라 한다. 대순사상의 神觀은 인간세계와 신명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신명계와 인간세계는 상호 감응관계(感應關係)에 있어, 신은 인간의 인격과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보고 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신은 항상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면 신의 도움을 받아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주 만물은 신의 조화에 의해서 존재하며,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은 인간에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믿고 있

32) 대순지침, p. 48.

33) 대순지침, p. 52.

34) 대순지침, pp. 48-49.

35) 대순지침, p. 48.

다.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신의 작용이며, 신이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순사상에서는 宗旨의 하나로 神人調化가 있다.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을 음과 양으로 인식하고, 신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협력관계를 갖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한다는 의미로 대순사상의 독특한 사상이다. 신인조화는 신은 진리의 표준이며, 인간은 진리에 합치될 수 있는 존재라는 가정에서 성립한 사상으로서,<sup>36)</sup> 인간과 신이 각각의 덕을 결합하여 완전함을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실현을 의미한다.<sup>37)</sup> 대순사상에서는 “신이 음이 되고 사람이 양이 되어, 음양이 서로 합한 연후에야 변화의 도가 있으리라(神爲陰 人爲陽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sup>38)</sup> 하여 신과 인간이 교류하고 협력해야 우주와 인간사회가 안정되고 바람직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 신과 인간이 교류하여 신인조화를 이루는데, 인간의 마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대순사상은 마음이 일신을 주관하고, 내심에 따라 몸으로 표현되고, 마음을 통해 신과 교류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마음을 평안하게 갖는 安心이 이루어져야 安身할 수 있으며, 인륜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이 바른 행동을 하고, 安心·安身을 실현하고 인륜을 행하고, 신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敬에 의한 수도가 필요하다.

대순사상에서 敬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예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경은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상의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sup>39)</sup> 또는 예의범절을 갖추어 처신 처세하는 것<sup>40)</sup>이라 한다. “예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일생동안 움직일 때나, 정지할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起居動靜)를 가리지 않고 항상 정도를 넘는 일이 없이, 공경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 주는 인도(人道)를 갖추는 것을 이른다.”<sup>41)</sup>고 한다.

36) 鄭大珍, “大巡思想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제1집 (大巡思想學術院, 1996), p. 5

37) 拙稿, “神人調化의 思想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3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38) 전경, 재생 43절, p. 309.

39) 大巡眞理會要覽, p. 16.

40) 대순지침, p. 52.

禮가 敬이라는 견해는 신유학에서도 제기하였다. 안으로 마음을 닦아 바르게 하고 밖으로 행동을 禮에 맞게 하여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면 수양은 바르게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道는 禮를 體로 삼았기 때문에 禮는 인간생활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다. 禮는 도덕, 仁義, 풍속, 윤리 등을 정립하는데 근본으로 보고 있다.

둘째, “지성봉축(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어야 경이라 하는 것이다.”<sup>42)</sup>라 하여, 敬은 誠을 지극하게 실행하는 것이라 한다. 어떠한 일을 하거나 사물을 대하는데 있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新儒學에서도 주장하고 있다. 誠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덕목으로 天道라 하는데, 敬은 인간이 誠을 행하는 근본 원리라 할 수 있다. 敬의 극진함을 誠이라 할 수 있으며, 사악함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은 誠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순사상에서는 至誠을 다하고, 다른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敬이라 한다.

셋째, 양심을 유지하고 虛慾을 갖지 않는 것이 敬이라 한다. 마음이 행동을 주관함으로, 마음을 편벽(偏辟)되지 않도록 하고 사사(私邪)됨이 없이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허욕을 갖지 않아야 安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양심은 天性이고 본심인데, 천성과 본심을 유지하는 것이 敬이라는 것이다.

넷째, 敬은 신중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행동은 마음의 자취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sup>43)</sup>고 하는데, 이는 新儒學에서 말하는 慎獨과 같은 의미로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敬은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으로, 신명을 대하는 것과 같이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畏와 같은 의미도 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요(自欺自棄), 마음을 속이는 것은 신을 속임이다(心欺神棄)고 하였으니 신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임이 되는 것이니 어느 곳에 용납이 되겠는가 깊이 생각하라.”<sup>44)</sup>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은 인간의 마

41) 대순지침, p. 68.

42) 대순지침, p. 52.

43) 대순지침, p. 47.

44) 대순지침, p. 42.

음을 알며, 행동에 대해 심판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sup>45)</sup> 敬은 神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무자기(無自欺)를 행하는 마음 가짐이라 할 수 있다. 경은 신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경은 하늘을 존중한다는 敬天의 의미도 있다. 敬天은 다음 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순사상의 경은 新儒學의 敬과 같은 개념으로, 바른 마음을 갖고 예의에 맞는 신중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순사상의 창도주인 강증산을 주재자로 숭배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을 뜻한다.

## 2. 敬天의 意義

대순사상의 사강령(四綱領)의 하나인 敬天은 字意대로 “하늘을 공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경천의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와 종교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천은 천존(天尊)으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을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의미이다. 하늘을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하늘을 신앙의 대상과 같은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늘을 신앙의 대상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天命思想에서 연유한다.

天命은 인간사회와 자연현상이 천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천의 지배를 받는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天命은 천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과 자연을 변화시키는데, 이러한 창조와 변화 능력을 命이라 한다. 인간과 만물은 천의 命을 받아서 생성되고 변화하는데, 피조물들이 천의 命을 받아 가진 것을 性이라 한다. 만물의 본질은 性에서 찾을 수 있고, 인간도 人性에서 본질을 알 수 있는데, 이를 天性이라고 한다. 中庸 제1장에서도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명하는 것(天命之謂性)”이라 하였다. 天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본질인 人性 개념이 유학의 人性論

45)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한 처사를 삼가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 전경, 교법 제1장 29절, p. 226.

의 기본이 되고 있다. 인성은 천에서 받은 명이기 때문에 자기의 동일성인 동시에, 나아가 인류의 동일성으로 확대된다.

대순사상에서도 천명은 하나는 하늘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함으로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하나는 창도주인 강증산의 계시와 언명(言明)을 따르는 것으로 신앙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 의미의 천명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뜻이고 선령신들의 지극한 정성에 의한 것<sup>46)</sup>이라 한다. 인간은 天命을 받아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인간의 도리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순사상의 道는 天理이며, 천명에 충실한 것이 수도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도는 우주 만상의 始原이며 생성 변화의 법칙<sup>47)</sup>이며, “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sup>48)</sup> 고 하였으며, “우주 대원의 진리가 도이며 도는 사람만이 깨달아 닦을 수 있으므로 도인으로서 본분에 알맞는 참된 말과 참된 행위를 준행하여야 한다.”<sup>49)</sup>고 하여 도는 天命 자체라 하고 있다. “誠 자체는 하늘의 도요, 誠하고자 함은 사람의 도이니 지극한 성으로 바르게 도닦기를 힘써야 한다.”<sup>50)</sup>고 하여 天道인 誠을 행하는데 지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天理와 人事의 합일성을 밝혀 道안에서 생성 존재하고 있는 진리<sup>51)</sup>를 깨달아야 한다고 한다. 인간은 천리를 갖고 있으며, 천리를 따르기 위해 지성을 다하는 것이 敬天의 일반적 의미이다.

신앙적 의미의 천명은 信條의 하나인 敬天의 설명에 잘 나타나 있다. 敬天에 대해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 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속에 새겨 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sup>52)</sup>고 설명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창도주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 또는 구천상제(九

46) 전경, 교법 제2장 36절, p. 241.

47) 대순지침, p. 44.

48) 대순지침, p. 18.

49) 대순지침, p. 23.

50) 대순지침, p. 41.

51) 대순지침, p. 45.

52) 大巡眞理會要覽, p. 15.



天上帝)라 하고, 그리고 종통을 계승한 조정산(趙鼎山)을 도주(道主) 또는 옥황상제(玉皇上帝)라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호칭은 절대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 구천상제와 옥황상제는 우주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최고의 지배적 주재자로서 지고지신(至高至神)의 존재라는 것이다. 敬天은 창도주와 도주를 신앙의 근원으로 존중하고 숭배하는 것이다. 경천은 구천상제와 옥황상제의 가르침을 깨닫고, 깨달은 바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천의 참 의미는 도의 근원은 하늘에 있는데, 도의 근원을 정립한 것이 구천상제이며 구천상제로부터 종통을 계승한 옥황상제라는 것이다. 구천상제와 옥황상제가 주재하는 인간이, 그 가르침을 깨닫고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경천의 핵심이다.

### 3. 敬의 實行

대순사상에서 敬을 실행하는 것은 修道를 충실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앙을 道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修道라 한다. 道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와 같은 개념이고, 대순사상을 이해하고 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수도라 한다. 대순사상에서 수도를 하는 목적은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즉 인간이 생존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인간 자신의 한계성, 죽음과 같은 심각한 고뇌를 수도생활을 통해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인류 역사가 지향하는 초월적인 이상이 주어져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윤리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sup>53)</sup> 대순사상에서도 초월적 존재를 숭배하고 수도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함양하고자 수도를 강조한다.

대순사상에서 수도는 창도주의 가르침(遺法)을 봉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는 敬天과 같은 의미로, 敬을 실행하는 것이다. 수도와 경천을 하는 데에는 敬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대순사상이 지향하는 이상세계(地上仙境)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윤리의 근거라 할 수 있다. 창도주를 초월적 존재로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함양하고자 하는 수도에 있어서

53) 柳東植, “韓國의 民俗·宗教思想 概說”, 李丙熙 외 譯, 韓國의 民俗·宗教思想 (서울 : 三省出版社, 1981), p. 11.

敬은 기본이 되고 있다. 대순사상의 수도나 경전은 敬을 실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敬의 실행은 양심을 잃지 않고,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마음이 만사를 주관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양심을 유지하여야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 양심은 본심이라 할 수 있는데, 양심을 갖고 양심에 따라 처신하는 것이 敬을 실행하는 근본이다. 대순사상에서는 道의 본원은 하늘이므로 바꿀 수 없는데, 도의 본원은 인간 자신에게도 내재해 있다고 한다. 인간이 道의 본원을 지키고 기르는 것이 수도라 할 수 있으므로 본성을 유지하고 기르기 위해서는 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둘째, 敬의 실행은 곧 誠한 마음을 갖고 誠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지성은 진리의 여륜(如倫)이요 不誠은 역리(逆理)”<sup>54)</sup>라 하고 있다. 誠을 다하는 것은 인륜을 행하는 것이며, 성현으로 추존받은 옛사람은 誠을 일생동안 값진 보배로 삼아 지성으로 진리를 수행한 분<sup>55)</sup>이라 하여, 誠은 성현이 되는 원리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도 誠과 敬은 분리할 수 없는 덕목으로 보고 있어, 정성을 다하는 행동은 敬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敬은 참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먼저 나의 마음을 참답게 함으로써 남의 마음을 참되게 하고, 먼저 내 몸을 공경함으로써 남도 몸을 공경하게 되며, 먼저 나의 일을 신의로써 하면 남들이 신의를 본받게 된다(先誠吾心 以誠他心 先敬吾身 以敬他身 先信吾事 以信他事)”<sup>56)</sup>고 하여, 스스로 참다운 마음을 갖고 공경하는 태도와 신의를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敬의 실행은 공경심을 갖고 禮를 갖추는 것이다. 수도는 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sup>57)</sup>이라 하여, 일상생활에서 인륜을 준행하여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이라 한다. 禮는 도덕과 仁義, 풍속, 윤리, 학문, 軍律 등의 확립과 정립을 하는 데에도 근본이 된다고 한다.<sup>58)</sup> 그리하여 禮는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의 기본 원리로서, 언제, 어디서나 공경심을 갖고

54) 대순지침, p. 41.

55) 대순지침, p. 41.

56) 대순지침, p. 70.

57) 대순지침, p. 37.

58) 대순지침, p. 68.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실행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예의 준행은 人道를 확립하는 것으로서 생활화하여 마음과 몸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sup>59)</sup>고 강조하고 있다.

넷째, 敬의 실행은 신이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경건한 마음을 갖고 신중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고 속임과 거짓이 없는 생활”<sup>60)</sup>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순사상은 신도(神道)라 하고 있는데, 神道는 인간과 신이 상호 직접적인 감응관계(感應關係)가 있다는 특수한 개념이다. 神道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신명의 도움이 있어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참된 마음을 갖고 신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과 인간이 상합하여야 우주와 인간사회가 바람직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과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덕을 상대로부터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고, 완전함을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sup>61)</sup> 인간이 신과 교류하여 상합하기 위해서는 신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고 본심에 따라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 IV. 結論

이상으로 新儒學과 대순사상의 三要諦 중 敬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敬은 新儒學에서 수양, 또는 공부를 하는데 기본으로 삼았다. 新儒學에서 수양의 원리로 삼고 있는 敬은 유학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학의 이념은 大學의 삼강령(三綱領)인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인데, 이의 실현을 위해서 修己治人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이 인격을 수양하는 修己와, 백성들이 안정된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治人에 중점을 두어 왔다. 修己와 治人을 至善에 이르게 하면 최고의 이상인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지상세계의 안녕과 질서가 완성된 이상사회인 平天下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新儒學者들은 유학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에는 治人 보다는 修己

59) 대순지침, p. 45.

60) 대순지침, p. 39.

61) 拙稿, “神人調化의 思想的 意義”, 前揭論文.

를 강조하였다. 修己를 통해서 개인들이 인격을 도야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함양하면, 平天下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유학에서는 天理가 개체에 부여한 것이 性이고, 본성에 따라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이 道이며, 도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 수양이라 한다. 유학에서 수양의 목표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君子가 되고, 나아가 완전한 인격을 갖춘 聖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수양은 군자와 聖인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新儒學에서는 敬에 의한 수양을 체계화하였다.

敬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주요한 의미는 첫째, 敬으로 마음을 곧게 하고 義로서 언행과 용모를 바르게 한다는 周易의 敬以直內 義以方外, 둘째,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과 자기 완성에 대한 책임감으로,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경계하고 삼가며 남들이 듣지 않더라도 두려워해야 한다는 憂患意識과 신독(愼獨), 셋째,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사욕을 갖지 않는다는 主一無適과 외적 용모를 단정히 하고 태도를 엄숙하게 하여 내적인 마음까지 專一하게 통일하는 整齊嚴肅, 넷째, 마음이 혼탁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치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생생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心常惺惺法, 다섯째, 마음을 수렴하는 其心收斂과 사욕과 사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不容一物, 여섯째, 경건한 마음을 갖고, 행동을 예의에 맞게 하는 것, 일곱째, 인격적 주재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행동을 하는 畏敬, 여덟째, 일상생활에서 항상 반성하는 태도를 갖는 點檢, 그리고 誠과 같은 의미 등으로 보고 있다.

주희는 인간은 방종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敬 공부를 강조하였다. 인간이 방심하여 본성을 잃어버리면 탐욕, 사욕, 사의 등이 생겨서 천리를 따르지 않고, 부도덕해진다고 한다. 인간이 본성을 상실하면 천명에 대한 외경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일상의 일을 반성하지 않게 되고, 방종과 타락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주희는 인간이 본성을 보존하여 완전한 도덕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敬을 근본으로 하는 수양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주희가 말하는 敬 공부는 개인적 욕망과 私意를 다스려 본성의 이치에 따르도록 善意志를 기르는 것이다. 주희는 이치를 체득하는 방법과 인격 수양의 방법으로 居敬涵養과 格物窮理(格物致知)를 주장하였다.

居敬涵養은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여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본성(天理)을 체득하여, 실제 생활에서 도덕적 본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수양공부이다. 주희는 마음이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中(本性)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居敬涵養法을 따르고, 마음이 발동한 경우에는 감정이 中和狀態에 이르도록 察識省察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격물궁리는 사물과 개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존재원리와 법칙들을 하나 하나 탐구하여 완전히 이해하려는 지적활동을 말한다.

居敬涵養과 格物致知는 상호보완적이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居敬涵養으로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하고, 외적인 格物致知를 통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도덕적 세계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본성을 유지하고 경을 생활화하는 居敬涵養과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는 格物致知에 있어서도, 敬의 원리와 태도가 근본이다. 居敬涵養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格物致知를 하지 않을 수 없고, 格物致知로 모든 사물의 이치를 豁然貫通하기 위해서도 居敬涵養이 실행되어야 한다.

대순사상에서도 敬은 新儒學의 경 사상과 유사하지만, 양심에 따라 바른 마음을 갖고 예의에 맞는 신중한 행동을 하며, 하늘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함으로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天命 思想과, 창도자인 강증산을 주재자로 숭배하고 계시와 언명(言明)을 따르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앙을 道라 하고 신앙생활을 수도라 한다. 수도는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생활에서 겪는 고통과 고뇌를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말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창도주를 초월적 존재로 숭배하고 수도생활을 통해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함양하고자 한다. 수도를 하는 데에는 창도주를 숭배하고 가르침에 따라 수도생활하는 것으로 敬天과 敬을 근본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따라서 敬의 실행은 신앙생활의 자체이며, 수도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敬의 실행은 첫째, 양심을 잃지 않고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며, 둘째,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갖고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셋째, 공경심을 갖고 심신이 일치하는 禮를 갖추는 것이며, 넷째, 신이 자신을 관찰하고 있

다는 마음을 갖고, 경건한 마음과 신중한 행동을 하는 것 등이라 할 수 있다.

살펴 본 바와 같이 敬은 도덕성을 확립하고 인격을 수양하는데 근본이 되는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리고 대순사상에서도 敬은 수도의 要諦로 신앙생활 자체로 보고 있다. 新儒學의 敬思想과 대순사상의 敬은 신앙생활과 인간생활에서 도덕성을 확립하고 인격 수양을 하는데, 근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제 생활에 실행하려는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은 도덕성과 윤리관을 누구나 갖고 있지만, 실제의 생활에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누구나 人倫을 행해야 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일을 하는 데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적 욕심과 욕망 등에 의해 비이성적인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나아가서는 의도적으로 비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도지각(道之覺)이라 하여,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한다. 道를 깨달았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 道를 깨닫는다는 것은 알고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行動化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오히려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도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修道는 道의 본원을 이해하는 동시에 실행하려는 활동이다. 道를 깨닫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사물을 대하고 일을 하는데 敬의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경건한 마음과 신중하고 예절바른 태도는 곧 수도를 하는 근본이다.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신중하며 조심스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수도는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행하여 심신이 일치되게 하는 修行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도는 인간이 최고의 인격을 완성하고 완전한 도덕적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참된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지성을 다하는 것이 인격 수양이며 바른 수도생활이다.<sup>62)</sup>

62) 拙稿, “誠思想과 修道”, 大巡思想論叢, 제9집(大巡思想學術院, 2000).

그리하여 대순사상의 수도는 誠을 바탕으로 敬과 信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른바 삼요체인 誠·敬·信을 종합하여 실행하여야 올바른 수도를 할 수 있다. 참다운 마음을 바탕으로 공경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확고한 신념체계를 갖고 수도를 해야 온전한 수도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대순지침

大巡眞理會要覽

典經

論語.

大學.

聖學十圖.

心經附註.

心經發揮.

語類.

遺書.

二程遺書.

二程全集.

周易.

中庸.

太極圖說.

退溪集

康東均, “朱熹의 敬 思想 研究”, 博士學位論文(東亞大學校 大學院, 1994).

具本明, 中國思想의 源流體系(서울 : 대왕사, 1982).

김종문, 장윤수, 한국전통철학사상(서울 : 소강, 1997).

柳東植, “韓國의 民俗·宗教思想 概說”, 李丙燾 외 譯, 韓國의 民俗·宗教  
思想(서울 : 三省出版社, 1981).

유명종, 성리학과 양명학(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4).

劉明鍾, 宋明哲學(서울 : 螢雪出版社, 1987).

李康洙, “人間의 目標問題에 관한 一考察”, 韓國孔子學會, 孔子思想과 現代  
(서울 : 思社研, 1986).

李基東, “孟子의 義思想에 대하여”, 道源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  
員會, 東洋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종로서적출판



주식회사, 1983).

李完栽, “儒學의 情神”, 道源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方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83).

鄭大珍, “大巡思想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제1집(大巡思想學術院, 1996).

拙稿,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拙稿, “神人調化의 思想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3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拙稿, “大巡思想의 信條 : 敬天·修道”, 大巡思想論叢, 제8집(大巡思想學術院, 1999).

拙稿, “誠思想과 修道”, 大巡思想論叢, 제9집(大巡思想學術院, 2000).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97).